

제주 인권의식 여전히 갈 길 멀다

■ 202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이주민·성소수자 등 ‘인권 취약 집단’ 위한 배려 필요”

제주사회에서 이주(외국인) 근로자와 성소수자와의 공존과 연대를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정도가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우선순위에서도 최하위로 밀려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 실태조사는 제주도의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정책 수요, 인권 취약 분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도민 1000명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 비정규직,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50명 등 1500명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사례, 제주인권보장 제도·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이중 일반 도민들에게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101개 인권정책과제’에 대한 인식도와 중요도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인식도 측면에서는 ‘4·3평화회복과 진상규명’이 1순위로 꼽혔다.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10순위 가장 낮았다.

특히 ‘이주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인식도는 5순위를 보

였으나, 중요도는 10순위로 최하위로 밀려났다. 외국인근로자·난민·다문화 가족 등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평균에 가까우나, 이들을 상대로 한 정책 과제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여부에 대해선 낮은 점수를 매긴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01개 인권정책과제 중 이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중요도는 최하위를 나타냈다.

인식도 측면에서는 일반도민 응답 결과와 같이 ‘4·3평화회복과 진상규명’이 1순위였으며 ‘도민 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10순위로 가장 낮았다. 중요도 측면에서는 1순위가 ‘보육 및 교육복지 환경개선’,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10순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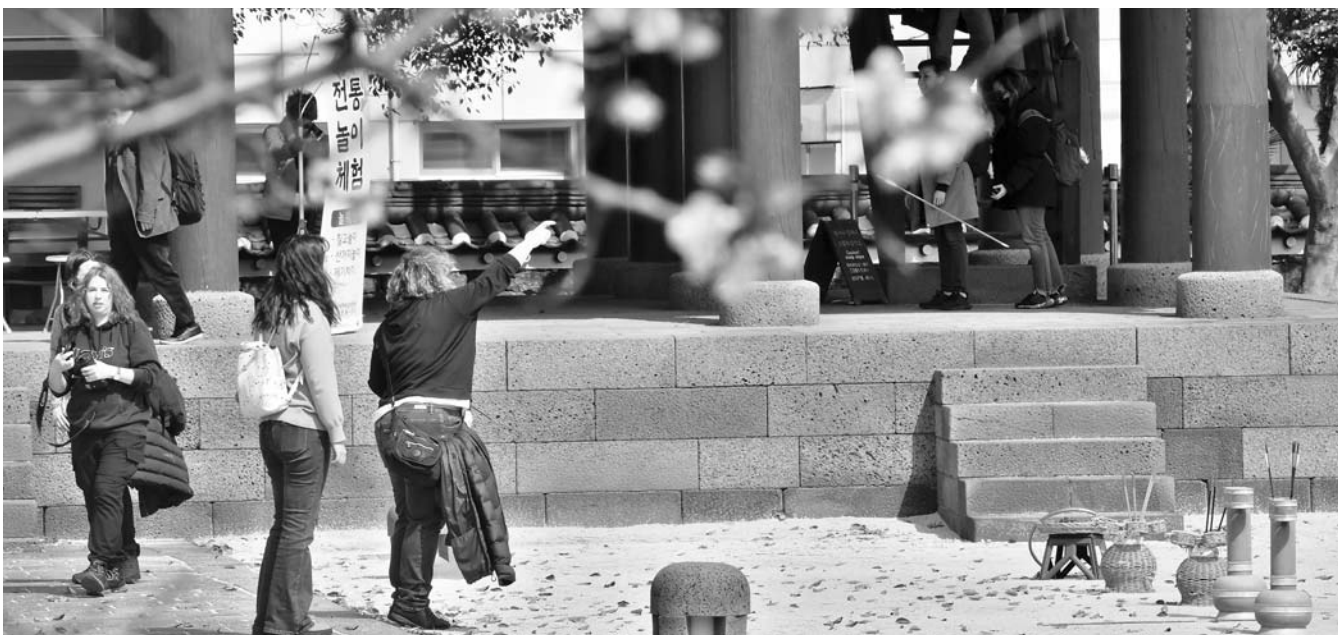
‘이주민·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인식도는 4순위로 평균에 가까웠으며 중요성은 9순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는 정도’와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선 아동과 노인이 각각 1·2순위로 꼽혔다. 성소수자가 10순위, 비정규직노동자가 9위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정책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1·2순위로 각각 아동·청소년을 꼽았으며, 이주(외국인)노동자와 성소수자가 9·10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이에대해 연구진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현실 상황에서 인권 가장 취약한 집단을 성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고 있다”며 “인권 정책을 통한 제주도민의 ‘포용’ 부분에서 아직도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누가 더 잘하니” 7일 제주목 관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놀이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완전범죄”

월정리 해녀회·반대 비대위 등 오 지사 고발장 접수

월정리 해녀회와 불법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 세계유산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등재운동연합,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7일 제주

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완전범죄”라며 “오영

훈 도지사 등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지정문화재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 보호구역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공문서를 위변조, 허위 작성 등의 방법

으로 현상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통해 불법적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장, 전기충전소, 놀이터, 제주담달테마공원과 정보센터, 야외 화장실, 팔각정 등의 시설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불법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오영훈 도지사, 문화재청장, 제주상하수도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 허위작성, 행사, 직권남용, 공동정범 등으로 제주지검에 추가 고발한다”며 “동부하수처리장의 신축과 증설과정에서 완충구역을 임의로 설정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유네스코에 공사상향 미보고 등 용천동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처리시설을 불법으로 보호하는 제주도정의 행위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과수원 방풍수 삼나무 대대적 제거

서귀포시,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예산 60억 투입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예산 6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과수원 방풍수인 삼나무 제거에 나선다. 감귤 생육환경 개선은 물론 꽃가루로 인한 각종 알레르기 질환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8억9000만원을 투자해 감귤원 방풍수(삼나무) 6만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망 농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예상물량을 142% 초과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축소 및 포기한 농가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감귤원 토양피복 사업과 함께 매년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임을 감안해 올해부터 보조

비율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예산도 전년도 3억원에 견줘 530% 이상 증액해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과수원 내 심어진 삼나무 12만~15만본을 제거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방식은 지난해까지 중동(나무 중간 자르기) 제거였으나 밀동까지 확대하면서 1본당 지원액은 3만3000원(밀동 제거 2만1000원, 파쇄비 1만2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방풍수 제거로 도로변 경관 환경 개선, 고품질 감귤 생산, 도민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 감소 등 1석 3조의 효과로 농가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2025년까지 삼나무 방풍수를 대대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3년도 도민 교육 운영

제주도는 도민교육 추진체계가 올해부터 제주도 평생교육정책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2023년도 도민 외국어 및 사회 교육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을 통해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공공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해온 도민 사회교육과 외국어교육이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도 평생교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도민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며, 내년부터 열린평생학습대학의 교육과정으로 편입·운영한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교육시설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평생교육다모아 시스템(damoa.jeu.kr)을 통해 교육신청·접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도민교육은 서귀포시 등 주요 권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시기를 주말과 방학기간 등으로 일부 조정해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대록기자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제주시, 14개소 45억 투입

제주시는 올해 14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설 현대화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배수 설비와 냉방 시설 정비, CCTV와 경관조명 설치 등 31개 사업에 걸쳐 이뤄진다. 사업비는 총 45억원에 이른다.

사업 대상은 상설시장 13개소,

정기시장 4개소, 상점가 3개소다. 도남시장, 동문공설시장, 동문시장(주), 로얄쇼핑센터, 보성시장, 서문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 중앙로 상점가,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한림오일시장, 한림중앙상가, 함덕오일시장 이곳이다.

채경원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시설 개선으로 상인과 이용객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진정한 제주인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미늘·더덕
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진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배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해신
물질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펠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식, 청정가식 수도매관 누출정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대 이벤트

보금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창방면 1층 삼림구이 서광로 225 2층

그랜드보청기